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Eroticism)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李京和·韓明淑*

상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가정교육학과 교수*

A Study on the Expressional Style of the Eroticism in Modern Clothing

Kyung-Hwa Lee and Myung-Sook Han*

Graduates School,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of Home Economics,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of Home Economics,
Sangmyung University*

目次

| | |
|----------------------|-------------|
| Abstract | 표현양식 |
| I. 서론 | 1. 직접적 표현양식 |
| II. 에로티시즘과 복식 | 2. 간접적 표현양식 |
| 1. 에로티시즘의 정의 | 3. 상징적 표현양식 |
| 2. 에로티시즘과 복식 | IV. 결론 |
| III.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sychology of putting on clothes has close relation with sexuality, and eroticism is of important in clothing. Present article aims to understand eroticism correctly and to make it evaluated as an art in modern fashion and as an aesthetic to express woman's beauty.

Modern eroticism in fashion may be divided into direct, indirect and symbolic expression made.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direct made, a representation of desire to exhibit. expresses eroticism by exposition of body or physical curve with tight garment.

Second, indirect made, a see-through technique using association, represents sexual appeal by imagination on body area hidden by clothes made of see-through material.

And third, symbolic made expresses sexual libido by representing body area or clothes which symbolizing woman's sexuality using materials like fur or silk.

Eroticism in modern clothing, therefore, should be understood as a beauty that is expressed by human artistic desi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eroticism in every culture because human nature is apt to form diverse kind of cultures.

I. 서론

패션은 무언의 의사소통으로서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한 일면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며 인간의 내적·외적인 미의식 세계를 표현하고 전달한다.

특히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어 이러한 성적 본능은 인간의 여러 예술활동에 승화된 에로티시즘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예술가들은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는 성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무수히 발산시켜 왔으며 많은 예술작품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본능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생(生)과 사(死)까지도 지향하는 에로티시즘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인간의 심층에 깔려 있는 원천적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libido)가 인간인 유기체를 행동하게 한다고 주장한 프로이트(Freud)에 이어서 그의 이론을 뒷받침한 프뤼겔(Flügel)은 무의식 세계의 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것이 복식 착용의 동기라고 주장하여 복식 심리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적 특성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시대에 따라 여성복식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었고 복식美의 성적 표현이 변화하고 성의 개방에 따라 에로티시즘의 개념이 변화함으로써 패션의 방향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인간의 진정한 성 본능의 표현, 즉 '인간욕구의 조형적 표현'이라는 에로티시즘의 본질은 왜곡되고 남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색되어 가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대 산업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쾌락적 문화의 대두·성의 표면화 등으로 왜곡되거나 남용되어 육체주의의 한 방편으로 전략해 버렸다.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은 성해방과 자유화로 인해 패션을 단순히 성본능을 자극하는 섹스어필로만 인식하여 사회적인

병폐까지도 가져오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수연은 "1960년대의 의상에 나타난 미와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에서 60년대의 전반적인 의상의 특징과 에로티시즘을 노출과 소재로 연결하였고 손미희·임영자는 1990년대 전반기 의상에 나타나고 있는 에로티시즘을 형태, 소재, 시각적인 면에서 에로티시즘과 연결될 수 있는 스타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것의 특성 및 사회현상과의 관계에서 표현의미를 분석하였다. 김명주·김문숙은 한 시대의 패션 변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순수미술과 복식과의 관계를 특히 미술사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을 중심으로 현대복식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의상에 나타나고 있는 에로티시즘의 관련성과 특성 및 표현의미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에로티시즘의 본질을 연구하고 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본질과 표현양식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착용심리가 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 인간의 복식에서 에로티시즘이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에로티시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에로티시즘의 뜻을 재조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이 하나의 예술로, 여성미를 표현하는 복식의 아름다움으로 평가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패션의 다양화, 국제화, 고급화, 정보화로 다양한 패션을 볼 수 있는 1990년대의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서적 및 문헌 등을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현대복식에서 에로티시즘이 표현된 복식을 1991년에서 1997년까지 발간된 패션 전문지 Collections, Mode et Mode, SFAA Collection 등에 나타난 현대복식의 에로티시즘의 표현 경향을 분석·연구하였다.

II. 에로티시즘과 복식

1. 에로티시즘의 정의

에로티시즘의 사전적 해석은 '에로티시즘이란 성적인 만족을 위한 양식으로서 육체적 사랑을 묘사하고 그것을 고양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현대에는 성적 욕구, 남녀간의 사랑 등을 에로티시즘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¹⁾.

에로티시즘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사랑, 즉 성애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어로 에로스이다.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하는데, 풍요와 가득함의 상징인 왕자 폴로스(Polos)와 결핍과 갈구의 상징인 여자겨자 페니아(Penia)의 사이에서 사랑의 결실인 에로스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이 신화에서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의 상징으로서, 한편으로는 본능적 욕망을 갈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갈구로 발전하는 등과 같은 이중성으로 표현된다²⁾.

에로스는 감각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사이를 연결해 주는 고리역할을 하며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을 만들어 내는 신, 또는 다른 형태에 있어서 남과 합일하도록 밀어낼 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바램을 고취시키고 정열적으로 진리와 합일을 추구하도록 밀어내는 충동이다. 이와 같은 충동은 문화적인 충동이 된다. 육체전체를 쾌락의 주체와 객체로 보존하려는 에로스의 목적은 유기체의 계속적인 세련과 감수성의 강화와 감성의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다³⁾.

또한 에로스의 기원인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티시즘은 단순한 성애와는 구분되어 있으며, 자아 실현의 원동력으로서 보다 나은 인간으로의 강화와 감성의 성장을 추구해온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한편 근대에 들어와서부터 에로티시즘은 생명의 원동력이라기 보다는 감각적 성애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근대에는 에로티시즘의 의미

를 감각, 지각, 육체적 쾌락의 의식적 개발로서, 성애로부터 출발한 강한 생의 충동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은 조르쥬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에 의해 현대에는 자아 발전의 원동력과 감각적인 성적 쾌락의 조화됨으로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게 되었다⁴⁾.

따라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성적인 욕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으며, 성은 본능적 욕구이자 사랑표현의 적극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에로티시즘이란 죽음으로써까지 승화되는 생의 찬양이며, 이는 삶과 죽음, 생식이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공동성이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 상호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은 삶, 죽음, 생식에 대한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간 내면에 깔려 있는 개인적 쾌락에서 벗어나 인간의 문화적 전통, 풍습, 신화, 종교, 예술 등의 내면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진심으로 승화된 사랑을 내포한 정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

그리고 에로티시즘은 '인간의 정신적 추구'로써 타인을 향한 자신의 내비침, 내보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심리적 표현행위가 갖는 특징, 즉, 성적 태도로 요약되는데 성에 대한 갈망, 혹은 열정, 성에 대한 친화력, 성애적 표현 등이 본질로 설명된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은 에로스로서의 사랑을 행동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의식화하여 사랑을 하나의 가치로서 주장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에로티시즘은 인간의 자율적인 전개행위를 통하여 내재적 완성에 도달하려는 예술활동으로 복식에 반영되어 표현되어 왔다.

2. 에로티시즘과 복식

에로스(eros)는 복식의 치장동기에서부터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복식과는 역사를 통하여 연관지어 발전해 왔다. 그리고 에로티시즘은 인간

- 1) 임윤,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복식디자인 연구-브래지어의 기하학적 조형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5.
- 2) Joseph Campbell, *Occidental Mythology*, Vol. III, from *The Masks of God*, (N.Y. Viking Press, 1964), p. 235.
- 3) 마르쿠제 저·김인화 역, 「에로스와 문명」(서울: 광문사, 1981), p.177.
- 4) 조르쥬 바타이유 저·조한경 역, 「에로티시즘」, (서울: 민음사, 1989), p.119.
- 5) 전해정,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p.13-14.

생활의 모든 면에서 표현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 예술, 복식, 풍속 등에 더욱 뚜렷하게 반영되어져 왔으며 복식에 나타난 성적 매력은 장식적인 동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학자들에 의해서 의복은 주로 성적매력을 더해 주려는 욕구와 신체의 성기에 대한 관심을 끌려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외부로 표출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는 신체 보호설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욕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에 근거한 복식 착용 동기이론이라면, 자신의 내면세계를 외부로 표출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다는 이론은 생물학적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한 보다 복합적인 인간 심성에 기초한 이론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⁶⁾.

프로이드(Freud)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3가지의 의식구조가 있는데 특히 무의식의 세계에는 리비도(libido)라는 모든 심적 에너지의 원천이 있어 이것이 인간인 유기체를 행동하게 하는 무의식적인 본능이며, 이러한 본능 중 가장 강한 것이 성적 본능으로서 이는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이고 야수적인 본능으로 쾌락원리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성적 본능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잠재해 있으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표출되며 에로스의 근원이 리비도에서 발원된다고 주장하였고,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살아 있는 실체로 하여금 더 높은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원동력이 이 에로스에서 나온다고 봄으로써 에로스는 자아실현의 원동력으로 인간이 현재 자신의 불완전성을 넘어 보다 완전한 자아로 지향하는 것이며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더욱 완

전하게 표출하려는 의지에서 최고의 미를 추구하는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다⁷⁾.

이러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복식 심리에 적용시켜서, 복식착용의 동기를 성적 본능과 연관지어 연구한 사람은 프뤼겔과 바글러이다.

프뤼겔(Flügel)은 사람들이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두가지의 상반된 경향-신체를 노출함으로써 관심을 끌려는 경향과 신체를 복식으로 가리고 싶어하는 경향-을 충족시키려 한다고 하였다. 즉, 복식은 몸을 감싸서 신체를 보호하고 정숙성을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아름다운 부위를 장식하고 승화시켜, 신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감추어진 부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⁸⁾.

바글러(Bergler)는 복식이 인간의 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보았으며 패션 변화의 주제는 여성 신체의 부분들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남성들에게는 여성의 신체를 두려워하는 무의식적 본능이 있으며, 여성의 복식은 여성신체를 두려워하는 남성들의 무의식적 두려움에 대한 방어책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가 복식으로 감추어져 있으므로 남성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여성의 옷을 벗겨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복식은 남성들의 '남자다움'의 환상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복식에 접합시켰다⁹⁾.

제임스 레버(James Laver)는 의복의 3원칙을 계급제도적 원칙, 유용성의 원칙, 유희의 원칙으로 구분하고 특히 여성의 복식은 유희의 원칙을 따른다고 주장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이 복식착용의 주요 원칙임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이성을 유희하려는 욕망과 정숙성의 갈등이 나체에서 의복으로 환원되었고 그때 의복은 절충물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의 선정적 부위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여성복식이 비정숙성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⁰⁾.

6) 심작광 옮 · 신영선 譯, 「衣의 문화인류학」, (서울: 교문사, 1990), p.7.

7) Sigmund Freud, *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Ⅷ, 1905, pp.88.

8) Flügel, J. C.,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the Hogarth Press, 1930), pp.107-192.

9) Mary Shaw Ryon,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pp.51-52.

10) Jeanette, C. L., and Robert, H. L., *Fashion Power: The Meaning of Fashion in American Society*, (N. J.: Prentice-Hall, Inc, 1981), pp.16-17.

또한 스틸(Steele)과 코브리너(Cobliner)도 에로티시즘의 원리가 복식의 양식에 적용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복식을 에로티시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의 이론들은 프로이드가 주장한 인간의 행위가 자아를 승화시켜 안정해 지려는 에로스 발현과정으로의 에로티시즘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를 복식의 착용동기와 양식에 적용 시킴으로서 에로티시즘이 복식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의복을 통해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과 보는 이로 하여금 성적인 본능을 유발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로티시즘은 생물로서의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나 생식행위와는 무관하며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기초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여러 행위 결과 중에 패션에도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위의 학자들의 논의와 같이 인간의 복식문화는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복장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착용하는 인간을 전체로 하는 것으로 남성, 여성이란 성(性)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복장의 아름다움은 에로티시즘의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여성복에서의 에로티시즘은 유혹의 원리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의복의 기원설인 이성 흡인설과도 일치한다. 즉 의복은 남녀가 서로 이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동기에서 생겨났고, 여성복식의 경쟁적이고 의식적인 동기인 유혹의 원리로 인하여 여성복식은 끊임없이 변화되었다¹¹⁾.

이에 대해서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특징적인 에로티시즘 표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의 에로티시즘은 태양에 그울린 섹스어필한 적갈색 피부와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착용한 노출 심한 백색의 의상, 시원스런 화장의 조화로 나타났다. 크레타 여인들은 깃가슴을 노출시키고, 허리를 졸라매는 등의 상당한 양의 노출과 과장되고 현란한 장식, 왜곡을 조합한 곡선미는 개방적이며, 인체미를 과장하는 것으로 에로틱한 특

성을 보였다. 또한 그리스 여인들은 드레이핑에 의한 주름과 은은히 표현되어지는 몸의 곡선이 에로티시즘을 나타내었다.

중세부터는 인간을 신으로부터 이어 받은 것으로 여겨 의복은 인체에 자연스런 인체미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인체의 선을 암시하기 시작하여, 르네상스시대에 와서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고 인간의 육체미까지도 변형시키며 과장된 실루엣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7, 18세기에 와서는 육감적인 앞가슴의 과장과 허리는 콜셋으로 강조, 페티코트에 의한 풍만한 엉덩이, 목선과 가슴선을 드러내는 대담한 데폴타주는 복식의 형태미를 위해 추구한 것이다. 오랫동안 감추었던 여체의 선이 데폴타주에 나타날 때, 그것은 관능의 세계를 정열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감정을 유발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스커트의 변화, 슬래쉬 기법, 복식의 틈새로 보이는 맨살, 앞목 부분의 가슴까지 노출시키는 디바이드 러프(divided ruff)는 관능적인 미를 대담하게 표현한 것이다.

19세기에 와서는 전시대의 의상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여 16, 17, 18세기의 의상이 나타났다. 즉, 리본, 레이스, 러플 등의 화려한 장식 사이로 나타난 정교한 피부는 독특한 매혹적인 관능미를 표현하고 가슴, 허리, 엉덩이의 삼위일체가 이루는 관능적 형태이다. 189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는 S자형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코르셋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허리는 심하게 조이고 가슴은 지나치게 앞으로 튀어나와 비둘기 가슴과 같이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튀어나온 가슴과 가는 허리는 에로틱한 포인트가 되어 여체의 주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에로틱한 인체의 곡선미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복식을 통한 에로틱한 여체의 곡선미는 1988년 인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Racroix, Ungaro, Givenchy 그리고 Cardin의 작품으로 연결되었다¹²⁾.

1911년대 호블 스커트는 극단적인 S자형 스타일에서 극히 자연스런 스타일로서 단순한 라운드나 브이네크로 가슴은 덜 강조되었으며 허리는

11) 유송옥,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1986), p.15.

12)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인상주의와 의상," 대한가정학회지, 21(2), (1989), pp.12-13.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위치보다 약간 더 올라간 위치였다. 이 시대는 다리가 에로틱한 강조부위로 대두되었다. 또한 1920년대의 플래퍼 스타일도 전체적으로 낮은 가슴과 허리선, 힙을 무시한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늘씬한 다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1920년대의 에로티즘의 포인트가 다리에 있었던 것이 1930년대에는 여성의 등으로 옮겨졌다. 대표적인 예로는 등이 노출된 이브닝 드레스로서 등이 허리선까지 잘려 나갔으며 등이 노출된 드레스는 좋은 각선미를 가진 젊은 여성들에게 선정적으로 보임으로써 유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20세기에는 에로틱한 부위가 광범위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에드워드 시대부터 에로티시즘의 유행이 목, 어깨와 가슴, 허리, 힙, 발목과 다리 등 유행의 포인트가 변화하였다. 따라서 각 시대에 따라 성과 인체개념이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복식미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 이때 변화요인은 에로틱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승화된 형태인 에로티시즘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복식에서 작용하는 에로티시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한 시대의 복식미는 그 시대의 육체의 이상미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III.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표현양식

현대에 들어와서는 모더니즘으로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에로틱한 심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에로스 원래의 의미보다는 성애의 뜻으로서의 에로티시즘을 다루고 있다. 현대의 성적 이미지는 때때로 정신성이 말살된 채 순전히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여 흥분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관능적인 스타일의 유행은 더욱 확산되었고 극대화된 노출의 경향은 성적부위로 은폐되어 왔던 가슴으로까지 확대됨을 보여주었다. 이에 색시함과 우아함을 드러내는 글래머스타일은 헐리우드의 섹스 심벌인

마틸린 머로를 연상케 하며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잘록한 허리는 몸을 완전히 드러내는 스타일과 함께 색시함을 느끼게 하였다¹³⁾.

이러한 글래머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가느다란 허리가 필수적이고 이에 등장한 것이 속박형 의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코르셋을 착용하였다. 20세기 후반의 코르셋은 아주 의식적이고 또한 명백하게 겉옷과 관련된 디자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성별이나 페티시즘, 육체나 심리적 억압과 만족 등의 관능적으로 관련된 문제와 보이지 않는 연관을 가진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면서 코르셋은 19세기 반계급에 유행했던 것 같은 저렴함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역할 이상으로 사치스럽고 감각적이며 쾌락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상함의 양면가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특히 1990년대 패션에 자주 등장하는 코르셋은 의복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므로 신뢰와 최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에로티시즘 표출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속옷의 겉옷화 현상에 따른 코르셋의 외부적인 노출, 속박을 연상시키는 타이트 레이스나 벨트, 지퍼와 같은 성적 상징성을 지니는 디테일의 사용, 밀착으로 관능미를 표출하는 바디 컨셔스 스타일로 대변되는 1990년대 후반의 의복이 가지는 미적 가치는 에로티시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시대로서 의상 역시 인간의 신체를 의식하고 강조할 수 있는 초섹시 스타일과 미래적인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 밀착된 디자인의 또 다른 표현인 바디 컨셔스 스타일은 '신체의 존재를 의식한다' 또는 '강조한다'는 의미로서 60년대 여권운동 이후 인체를 공공연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을 섬세한 도구로 소재의 신축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와 기법의 조이는 바디 컨셔스 스타일은 가학적인 표현으로 자극적인 형태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성적 매력의 변형된 표출이며 여성 인체

13) 정현, "인체 속박형 의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57.

와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세디즘적 관계로 표현한 것으로 관능미를 더욱 강조한다¹⁴⁾.

이와 같이 인간은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의 수많은 이즘(ism)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성을 주제로 택하여 복식에 무의식적 욕망을 표현해 왔으며, 의복의 착용동기가 단순히 기능적이라는 개념이 바뀌면서, 인간은 자기표현으로서 성적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장식하는 등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양식을 직접적 표현양식, 간접적 표현양식, 상징적 표현양식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현대복식의 에로티시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직접적 표현양식

의복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어느 시대이건 몸의 일부가 노출되지 않았던 때는 없다. 각 시대마다 인간은 어깨를 드러내거나 가슴, 힙, 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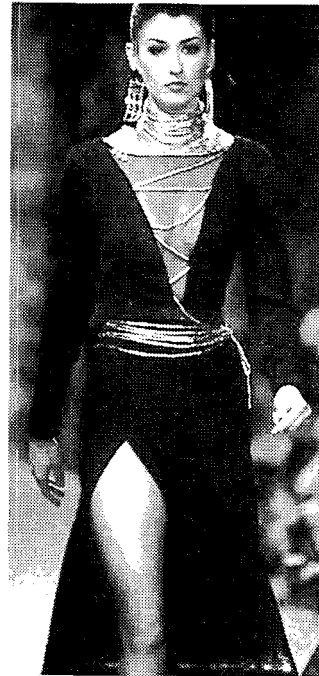
다리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여 왔다.

따라서 복식을 통해 성적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출에 의한 것으로서 노출이란 복식 밖으로 인체의 부위를 드러내는 현상과 복식을 통해 인체의 선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체의 성적 매력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양식은 노출로서 신체를 직접 외부로 드러내는 것과(그림 3, 4) 밀착을 통해 인체의 선을 드러내는 것(그림 1, 2)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의 패션은 남성의 의복보다 현대에 와서 '더 도덕적이고 더 노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남성은 남성의 상징인 남근이 노출되어 있으나 여성은 그렇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방어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방어의 자세란 복식의 정숙성으로 과시욕구의 반작용 형태이며 여기에서 도덕성은 노출중에 대한 형성반



<그림 1> Collezioni Haute Couture
(91'- 92' F / W)



<그림 2> Collezioni Haute Couture
(92'-93 F / W)

14) 김태희, "복식에 나타난 Femme Total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34.



<그림 3> Collezioni Haute Couture
(94'S/S)

움으로 여성은 신체의 다른 부분을 내보이고자 하는 것에 의해 '보상'받고자 한다는 것이다¹⁵⁾.

그러므로 인체의 성의 상징이 되는 부분을 대담한 노출로서 표현하여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 것이다.

복식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노출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선정성을 수용하는데 대담하게 가슴을 노출하거나(그림 3, 4), 과감하게 등이나 어깨를 드러낸 모습(그림 1, 3, 4) 또는 미니스커트(그림 3)나 핫팬츠를 통한 다리선의 노출(그림 2, 3) 등에서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신체의 대담한 노출뿐만 아니라, 몸을 부분적으로 장식하거나 은폐시켜 틈새로 '보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킴으로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부분적인 노출기법 역시 여러 복식에 이용되고 있다. 슬래쉬(slash)(그림 2)나, 슬리트(slit)(그림 1), 커팅(cutting)(그림 4), 구멍뚫기 등의 기법을 통하여 복식 틈새로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어(그림 3, 4), 타인으로 하여금 복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에 대한 상상을 불러 일



<그림 4> 95' S/S SFA

크임으로서 대담한 노출이상으로 더욱 선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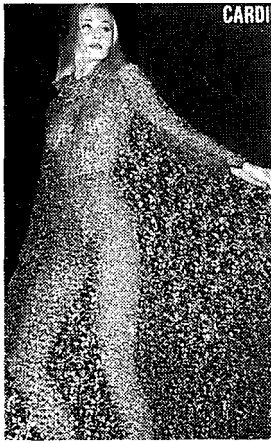
밀착기법(그림 1, 2)은 아름다운 신체의 곡선에 복식을 밀착시켜 인체의 굴곡을 반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누드에서보다 에로티함을 더 느낄 수 있게 한다.

복식 표현기법뿐 아니라 복식의 소재 역시 에로티시즘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식의 소재는 제 2의 피부로서 입은 사람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으며, 각각의 복식 소재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에로티시즘 표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가죽은 대부분의 경우 신체에 꼭 끼는 옷으로 제단하여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내며 동물의 겹질로서 사람의 피부를 직접 연상시켜 보다 에로티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간접적 표현양식

인체부위 중 은폐의 부위로써 늘 인식되어 오

15) Steele, V., *Fashion & Erotic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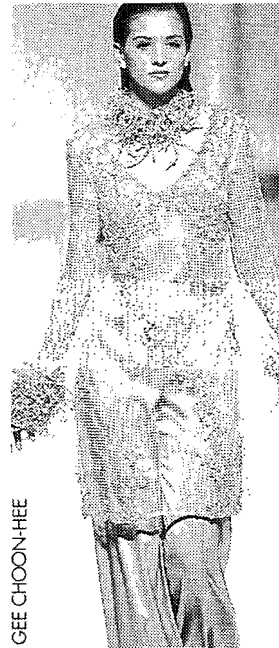
<그림 5> Collezioni Haute Couture
(92'-93'F /W)



<그림 7> 95' S/S SFA



<그림 6> 95' S/S SFA



<그림 8> 95' S/S SFA

던 치부의 간접적인 노출은 선정적이다. 정신분석에서는 호기심 있는 행동 그 자체가 성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며 성에 알고자 하는 욕구는 신체를 감춤으로써 관찰자로 하여금 성적 매력의 근원에 의해 의복을 벗겨내고자 하는 욕구를 만

들어 낸다고 한다. 따라서 호기심 어린 간접적인

노출 또한 에로티시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것이 끊임없이 노출되어 질 때 그것은 상상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보통처럼 인식되거나,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다. 그러므로 복식에 있어서의 간접적 표현은 사람들이 노출된 부분보다 가려진 부분에 대한 상상을 하게됨으로서 이성에게 더욱 성적인 자극을 준다는 논리에서 근거하여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투시기법(그림 5, 6, 7, 8)은 간접적 표현양식의 대표적인 양식으로서 특히 연상심리를 통해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상징적이고도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투시기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인지로 그치지 않고 섹스 어필을 감지하여 형태를 상상하는 충동을 일으켜 성적 연상에 이르게 되고 그로서 강한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된다¹⁶⁾.

패션에 있어서 이러한 소재의 도입은 시각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소재라는 일차적 관문을 넘어 연상, 다른 말로 관념연합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일으켜 자극적이고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미묘한 충동을 불러 일으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하는 호소력 있는 효과를 내게 만든다.

예를 들면 가볍고 고급스러운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노출이 가능한 레이스(그림 5, 7)는 여성적 섬세함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며, 투시나 부분 노출을 통해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비닐, 시폰 등의 비치는 소재(그림 6, 8)는 감추어진 미를 표현한다. 이러한 복식에 사용된 비치는 소재(see-through)의 재질, 트임, 부분적인 노출 등은 인체를 은폐와 노출의 변증법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이며 이러한 것은 보이어리즘(Voyeurism)의 현상으로 노출중 혹은 자기과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아크릴, 플라스틱 등과 같은 독특한 소재가 연출하는 효과 등도 복식의 에로티시즘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상징적 표현양식

상징적 표현양식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표현된다는 것으로써 그 대상으로 여성의 발, 머리카락, 피부, 가슴 등의 신체일부(그림 10, 12)와 구두, 속옷, 코르셋 등의 의복항목(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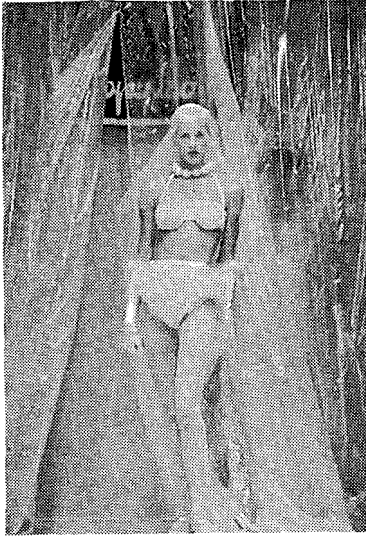
<그림 9> Collezioni Haute Couture
(91'92' F/W)



<그림 10> Collezioni Haute Couture
(92'93' F/W)

림 9, 11)을 복식의 에로티시즘 표현양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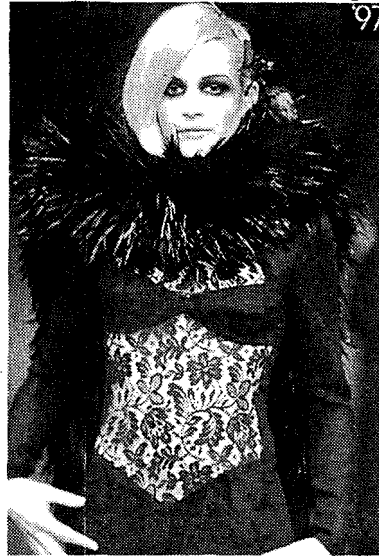
16) 민마홍,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9), p.37.



<그림 11> Collezioni Haute Couture
(95'96' S/S)

이러한 에로티시즘의 표현 또한 여성적 상징의 의미를 지닌 소재들을 복식으로 위치전환하여 비합리적이며 억압되어 왔던 인간 내면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위치전환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재음미하게 하는 것이다.

프뤼겔은 각각의 복식 부품들이 신체의 성적부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성적 상징주의를 조장함으로써 복식이 성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성복 중 앞이 길게 나온 구두, 넥타이, 긴 칼라, 바지 등은 남근을 상징하고 있으며, 여성복식 중 앞이 둥글게 파인 구두, 베일, 거들, 가터, 팔찌, 보석류 등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프뤼겔은 복식은 신체에 대한 관심을 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복식의 기능이 주로 성적 매력을 더해 주려는 욕구와 신체 부위 중 성기에 대한 관심을 끌려는 에로틱한 욕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그는 복식에서 성차의 필연성은 성차 자체를 강하게 하려는 욕구 즉, 주로 성적 열정을



<그림 12> Collezioni Haute Couture
(97' F/W)

좀더 용이하고 빈번하게 환기시키려는 목적에 도움을 주는 강조의 욕구라고 주장함으로써 남녀간의 성적 욕구와 성적인 에로티시즘이 복식에 있어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¹⁷⁾.

한편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강조시킴으로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과장기법이 있다. 이는 여성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에로틱한 신체의 곡선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름, 패드, 보정 속옷 등을 이용해서 여성적 곡선을 인위적으로 과장하여 관능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소재로는 모피(그림 10, 11, 12)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함으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며 특히 여성이 모피를 착용할 경우 모피는 여성의 탐욕스러운 머리카락과 음모를 상징하게 되어 애무의 대상으로 결부될 수 있다. 실크(그림 9)는 감촉이 좋고 비밀스럽고 개인적이며 나체를 연상시키는 재질로서 최음적인 작용이 있어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관능을 자극하는 소재로써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¹⁸⁾.

17)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동아출판사, 1986), p.251.

18) 임윤,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복식디자인 연구-브래지어의 기하학적 조형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12-13.

-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인상주의와 의상, 대한가정학회지, 21(2), 10-21, 1989.
- 김태희, 복식에 나타난 Femme Total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민미홍,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박휘숙, 패션에 나타난 팝사조 중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백은미, 20세기 전반기 서양 여성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변지현, 미니멀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소영미, 20세기의 슬립 앤 롱 실루엣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손미희, 임영자, 1990년대 의상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26호, 29-47, 1995.
- 임 윤,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복식디자인 연구-브래지어의 기하학적 조형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전혜경,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정 현, 인체 속박형 의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추미경, 현대복식에 표현된 신고전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한수연, 1960년대의 의상에 나타난 미와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Campbell, J., *Occidental Mythology*, Vol. III. from *The Masks of God*, N.Y. Viking Press, 1964.
- Flü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the Hogarth Press, 1930.
- Freud, S., *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VIII, 1905.
- Jeanette, C.L. and Robert H.L., *Fashion Power: The Meaning of Fashion in American Sociality*, N.J.: Prentice-Hall, Inc. 1984.
- Ryon, M.S.,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chat and Winston, Inc, 1966.
- Steele, V., *Fashion & Eroticism*, New York : Oxford Universiyt Press, 1985.
- Collections*, 1994-1997.
- Mode et Mode*, 1991-1993.
- S/S SFAA*, 1995.

IV. 결 론

에로티시즘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생물로서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생식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인간은 생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생행위의 이미지를 환기, 암시, 혹은 표현하는 것에서 에로틱하다고 여긴다. 에로티시즘은 에로스로서의 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이를 의식화하는 것이며, 때로는 의식화된 것을 하나의 가치로서 주장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은 성적 호소와 선정적 부위에 대하여 패션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여성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 욕구를 의복에 표현하여 복식미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복식에서 나타난 에로티시즘을 이해하는 것이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로티시즘은 변화되는 시대와 생활에 따른 인간의 자유에의 의지가 복식에 직접적으로 도입되어 현대복식에 까지 디자인의 영감을 불어넣는 요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통속적인 주제, 사람과 성을 통하여 진실된 인간존재의 참모습을 복식에서 표현함으로써 인간성 회복을 나타낸다.

복식사상의 세기말은 장식성이 강해지고,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호화로운 분위기와 에로틱한 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양한 현대의 패션 흐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의 하나로 새로운 인체미학인 에로티시즘의 표현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양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 표현양식은 보이게 하는 욕구의 표출로서 가슴, 어깨, 다리 목 등의 과대한 신체이나 슬릿트(slit), 커팅(cutting), 슬래시(slash)등으로 복식의 틈새로 노출을 하거나 가죽 등과 같은 소재를 이용한 밀착된 복식으로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밀착기법으로써 에로틱함을 표현하는 양식이다.

둘째, 간접적 표현양식은 연상심리를 통해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투시기법으로써 레이스, 비

닐이나 시폰 등의 시쓰루(see-through)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가려진 부분에 대한 상상으로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표현양식이다.

셋째, 상징적 표현양식은 여성의 성적인 상징이 되는 발, 머리, 가슴, 등의 신체일부나 구두, 속옷, 코르셋 등의 의복항목을 모피, 실크 등의 특별한 소재로 표현함으로써 성적내면세계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복식에는 직접적, 간접적, 상징적 표현양식으로 에로티시즘을 성에의 문제와 혼돈하여 모든 것을 생행위로 귀결시켜 종래와 같은 도덕적인 비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주제를 인간이 예술의욕에 의해서 표현된 복식의 아름다움으로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식개발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로서 인간의 본성이 다양한 측면으로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각 문화에서의 복식에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마르크제 저 · 김인화 역, 에로스와 문명, 광문사, 1981.
- 김 청, 21세기의 패션, 패션문화, 1992.
- 深作光貞 저 · 신영선 역, 衣의 문화인류학, 교문사, 1990.
- Alison Lurie 저 · 유태순 역, 의복의 언어, 경춘사, 1986.
- 유송옥, 이은영, 황성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화사, 1986.
-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8.
- 조규화, 복식미학, 동아출판사, 1986.
- 조르쥬 바다이유 저 · 조한경 역, 에로티시즘, 민음사, 1989.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 김명주, 김문숙, 현대복식과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초현실주의, 팝아트, 포스트모더니즘, 한국의류학회지, 18(4), 460-471, 1994.